

<다섯 번째 방>

(전찬영 감독, 한국, 2024)

1. <다섯 번째 방>은 영화감독인 딸의 시선으로 중년 엄마를 카메라로 따라다니며 보여주는 영화다. 엄마는 주부, 외며느리, 아내, 딸, 상담사, 그리고 가정폭력 생존자이기도 하다. 감독이 자기 가족사를 담아내는 게 요즘의 다큐 영화 트렌드라는데, 영화를 어떻게 보았는가? 영화를 보며 가장 크게/많이 느낀 감정을 기억해 보자. 별점(5점만점)을 주고, 그 감정 언어를 1~2개 사용하며 감상을 이야기해 보자.

(예시: 공감, 분노, 답답함, 두려움, 슬픔, 연민, 동병상련, 따뜻함, 웃음, 시원함, 부러움, 미움, 살의, 환멸... / “내내 답답함과 동병상련을 느끼며 봤다. 현재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2.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장면/대사/미장센 하나를 뽑아 이유와 함께 임팩트 있게 영화를 소개해 보자. 듣고 공감/비공감 등 서로 보태며 확장해 보자.

3. 엄마 효정은 시부모와 남편 그리고 세 아이를 돌보는 전업주부로 결혼생활 내내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 상담사로 일하는 ‘가장’이 된 후 집에서 가장 큰 방을 쓰다가 시댁살이 30년 만에 ‘다섯 번째 방’을 얻어 독립하려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방’으로 나가려는 효정에게 얼마나 공감/비공감하는가? 효정에게, 당신에게, ‘방’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방’과 함께 떠오르는 경험이나 꿈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 보자.



****효정:** 아빠랑 살던 집에서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방이 생긴 거잖아. 그것도 되게 좋았고. 이 방이 생기면서 되게 행복했지. 그때부터 피 터지게 아빠한테 투쟁도 좀 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당연히 기죽어서 해야 된다 여겼던 것들을, 안 되는 것에서 내가 끊어내고, 당연히 아빠 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에서 독립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내가 그거 못할까 봐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경제력이 생긴 건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했지.

****효정:** 거의 열린 공간이지 열린 공간. 내 공간이 처음부터 그랬다. 결혼해서 처음에도 저 작은 방에 있을 때도, 수시로 문 열고 하는 것들, 푹푹하고 문 여는 경우 거의 없었고. 이 바에 왔을 때도 그랬고 좀 그렇고. 하물며 상담하고 있는데도 문 켜 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반복되면서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효정:**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난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 얘기 나한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 저는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소외감이 느껴졌어요. 완전 저를 무시하는 거 같고 그런게. 허허 웃고 사니까 괜찮은 줄 아세요 어머니? 제가 일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적이 많은 줄 알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효정:** 찬영 아빠야 풀랑 집 한 채 거기 들어가는 의미는 나한테는 되게 크다는 거다. 지금도 나는 집 한 채 없고.

내가 살아온 삶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거 같아. 어머니 집이지만 내 집이기도 하잖아. 내가 살고 있잖아. 나는 30년 동안 시어른 모시고 살았잖아.

****효정:** 혼자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거다. 새로운 공간에 그냥 탁 있는 이 느낌이 좀 묘했어. 표하고 꿈인지 생신지 약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 아, 이제 자유를 얻는 거야?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꿈도 못 꾸던 시간이...

*****버지니아 울프(1882~1941), 『자기만의 방』(1929)에서 발췌**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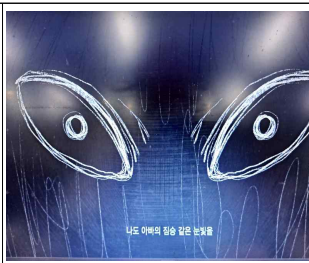
“한 개인이 최소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과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광범위한 주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시줄을 강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게, 여러분 스스로 충분한 돈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그저 이백 년 동안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여성은 아테네 노예의 아들보다도 지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없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나는 돈과 자기만의 방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4. 장인의 장례식장에서 전성이 술에 취해 폭주할 때 찬영과 효정은 그의 ‘집승 같은 눈빛’을 보고 만다. 이후 가족회의에서 찬영과 함께 효정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전성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을 가정폭력 피해자/생존자로 인정하게 되고, “폭력적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는 강의를 준비한다. 효정에게 빙의해 목소리를 내 보자.

- 폭력적 인간은 태어난다. 왜냐하면...
- 폭력적 인간은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 효정:** 왜 내가 밥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설거지 안 돼 있는 거에만 신경쓰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당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내 밥 먹은 거에 관심은 아무도 없고, 너 들어왔으니까 집안일해야 하는데, 내 이거 했다 이거 잘 했지 이런 얘기만. 난 일을 썰매 빠지게 하고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해야 하는 사람이고 청소해야 하는 사람이고. 대신해 주는 어머니한테 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고.

**** 해설:** 할아버지는 차와 직장을 아빠에게 해주었고 할머니는 아빠의 편이 돼주며 뒷바라지했다. 아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 외동아들일 뿐이었다. 결혼해도 여전히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빠는 점점 집에서 짐이 되었다.

전성: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데 니가 소통을 좀 시켜 줘야지.

찬영: 나는 해줄 수 없어.

전성: 엄마가 날 별로 안 좋아해 요새. 아빠 안 가. 안 가.

효정: 우리 일을 하고 자야 해.

전성: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찬영이 니가 할 수 있는 거 같애. 원점으로,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 주세요. 우리 옛날에 사랑했잖아.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도 아빠 사랑했어. 우리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너를 낳은 거 아이가.

**** 효정:** 우리가 사위고 우리가 상주잖아. 당신 상주 아니냐? 혼자 술 너무 과하게 취했다. 그라고 여기저기 가서 장난치고 이갈 때 아니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고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전성: 내가. 형님(큰이모부)은 손님 없으니까 절했겠지. 근데 거기(빈소) 안 들어온다고 노골적으로 너무 애기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형님한테 뭐라 했나면, 형님 이 집의 상주인고? 상주 아니잖아. 지나 내나 사위란 말이야 이 집에.

효정: 사위는 상주 아이가? 당신이 저기 빈소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신경 쓴 적 있었나?

**** 찬영:** 왜 엄마가 미안해?

효정: 내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 상황을 너에게까지 노출되지 않게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 아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기에만 바빴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너의 두려움을 보기 어려웠었지.

**** 전성:** 결론만 얘기하라니까. 설명이 뭐 필요있노. 니는 항상 잘했으니까. 니 잘했는 거 다 알아.

효정: 아니 잘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결론만 얘기할 거 같으면 결론만 통보하지. 왜 모였어. 나는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고, 처음엔 내가 착각했어. 당신하고 이래 살면 우리 애들하고 동지를 틀고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1년 전에 어머니 마음을 딱 알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그 생각 들더라. 여기는 당신 집이야. 나는 들어온 사람이고. 난 지금부터 좀 자유롭게 싶어. 내가 의무와 도리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내려놓고 싶거든. 그거는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찬영: 나는 아빠가 물건 집어 던질 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아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아빠 나는 그 두려움에 있잖아 계속 떨어. 그게 화가 났어. 아빠는 다른 가족들한테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면서 아빠는 왜 끝까지 자기 감정만 얘기해? 다른 사람 아프게 하냐고. 진짜 그거 사과해 아빠. 왜 아빠가 뭔데 우리 삶에 그렇게 상처 주고. 아빠한테 그 순간이지 나한테 평생이라고.

**** 효정:** 내가 가정폭력에 관해 얘기하면서도, 늘 하던 얘기가 내 경우라는 생각을 진짜 덜 했던 거 같아. 나는 이걸 폭력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 집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낀 거라. 양평원에서 얘기하는 게 내 삶하고 딱 연결되지. 아빠가 술에 취해서 그럴 수 있어로 받아들였는데, 쿵쿵, 이게 폭력으로 느끼는 게 이게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억울했구나. 항상 속상하고 억울했거든.

5. 효정과 찬영 모녀 관계와 이들의 가족 관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온 가족이 모인 가족회의를 상상하자. 전성 같은 남성 가부장이 마주 앉아 있다면 그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해 보자. 어떻게 하면 그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녀/모자/부부/부모자식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돌보며 연대할 수 있을지, 통찰과 경험을 나눠도 좋겠다.

6. 이 영화를 나만의 한 문장/열쇳말로 정리해서 말해 보자.

“<다섯 번째 방>은 -----를 말(질문)하는 영화다.”

■ <다섯 번째 방> 올림 영화 토론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로 마무리. 영화 본 느낌을 감정 언어로 표현하며 토론을 시작했는데, 마무리하는 지금, 시작할 때와 달라진 느낌이나 관점이 있다면 나눠도 좋겠다.